

“공공기관 이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야”

윤병태 시장, 공동성명서 결의 청와대·국토부·국회 등에 전달

나주시를 비롯한 전국혁신도시(지구) 협의회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에서 임시회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배치 촉구’ 공동 성명서를 결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11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023년 말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발언한데 이어 1월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국토교통부 업무보고가 이뤄짐에 따라 윤 시장이 협의회 회장 도시인 전북 완주군에 임시회 개최를 긴급 건의하며 열렸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상반기 내 이전기관 선정기준, 입지원칙’ 등이 담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회에는 협의회 부회장인 윤병태 나주시장을 포함해 전국 9개 혁신도시, 11곳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연내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전국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일각에서의 타 지역 분산배치 주장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담겼다.

여기에 기존 혁신도시의 열악한 정주



윤병태 나주시장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지원청’ 설치 등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각 단체장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타 지역에 분산배치 된다면 지금까지 지자체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등 지방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청와대, 국토부, 국회, 균형위 등에 직접 방문·전달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혁신도시 조성 취지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단순 차원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상가공실 해소,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에 초점을 두고 지역균형발전 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의회 노력의 식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각 지구별 순회 건의,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자”고 덧붙였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평생학습 좋은정책상 수상 나주시, 전남 지자체 중 유일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달 26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AWARD)’에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제1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특별상, 2022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이번 초대 어워드 수상까지 3년 연속 상훈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서 품격을 드높였다.

이번 어워드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하고 EBS한국교육방송공사가 후원했다.

심사는 전국 189곳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 도시와 교육지원청 74곳, 대학·평생교육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우수 정책사업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협의회는 1차 심사를 통해 정책사업 97건을 추려내고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지자체 15곳과 기관 5곳을 각각 선정했다. 나주시가 공모·수상한 평생학습 정책사업(명칭)은 ‘지구를 바꾸는 작은 움직임, 에코 체인지메이커’이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시민안전보험 4개 항목 추가 나주시, 3월부터 적용

나주시가 보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민선 8기 ‘2023년형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3월1일부터 시민에 적용할 계획이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에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제도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전세버스, 농기계·뺑소니·무보험 차·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강력범죄, 익사, 자연재해 등에 따른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별도 자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단 해당 항목 상해에 따른 ‘사망’의 경우 만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4가지 항목을 새롭게 추가로 보장한다. 항목은 실버존 교통사고,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으로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나주보건소, 불소용액 무료배부

나주시가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불소용액을 무료로 배부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불소양치용액 양치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보건소는 만 3세 이상부터 전 세대에 불화나트륨 0.05%농도 가글 용액을 무료로 배부하고 하루 일회 꾸준한 양치를 권장하고 있다. 불소 가글 용액은 시민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2동 구강교육실(2층)을 매주 화, 목요일에 우선 예약 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불소는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해주고 구강 내 충치균 등에 의해 형성되는 산으로부터 치아표면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나주시 종합스포츠마파크에 전국 육상선수단 등 23개 팀 260여 명이 동계전지훈련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나주시는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나주시 제공

전국 육상팀, 나주시 동계전지훈련 ‘후끈’

실업 11팀·고등부 12팀 등

나주시로 모여든 전국 각지 육상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가 육상트랙 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종합스포츠마파크로 동계 전지훈련을 온 전국 육상팀 선수단 규모는 실업 11팀, 고등부 12팀 등 총 23팀 선수 260여명에 달한다.

새해 첫 날 입소를 시작한 각 선수단은 2월 말까지 길게는 한 달 이상, 최소 25일 간 나주에 체류하면서 기량 향상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나주시지역이 육상 전지훈련지로 주목받는 것은 종합운동장 내 육상트랙, 보조경기장, 다목적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물론 선수단 체류, 영양 관리에 필요한 숙박시설과 식당 맛집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선수단이 체류 및 훈련 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훈련·숙박시설 편의,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해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19차례 유치·개최했다. 대회에 참가한 아마·프로 선수 규모는 1만1000명에 달한다. 동계 전지훈련에 22팀, 266

명이 방문하는 등 스포츠 대회·전지훈련 유치로 20억원 상당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윤병태 시장은 최근 동계전지훈련팀 지도자, 선수단과 합숙소 인근 식당 만찬에 참석해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을 응원하기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3600억원 규모 영산강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추진에 따른 강 저류지 레저·스포츠·관광 공간 조성을 통해 나주를 스포츠 전지훈련 1번지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멋진 마을버스 명칭 공모 합니다”

7월부터 15인승 도입 예정

나주시가 민선 8기 대중교통 개편에 따라 도입 예정인 ‘마을버스’ 명칭을 공모한다.

나주시는 마을버스(15인승) 사전 홍보 강화와 시민 참여 시정의 일환으로 마을버스 명칭을 1~10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나주시 대중교통 혁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의 대중교통 편익을 최우선한 수요자 중심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비효율적 노선의 개편을 통해 매년 지급돼 온 운수회사 손실보조금 지원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마을택시를

연결하는 효율적 노선 체계 구축, 마을택시 확대, 간선(광주) 노선 정비, 급행버스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중 ‘마을버스’는 공차율이 높은 시내버스를 대신해 읍·면 소재지에서 자연 마을을 순환하면서 운행할 계획이다.

명칭 공모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10일까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 시청(3층)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인재육성기금 300만원 기탁 권상준 우리한국배연구회장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우리한국배연구회 권상준 회장이 인재육성기금 300만 원을 나주교육진흥재단에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상준 회장은 우리한국배연구회 활동 사항과 더불어 교육 복지 및 인재 육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권상준 회장은 “나주의 미래를 설계할 인재 육성에 지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환원하고 싶어 기탁하게 됐다”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우리한국배연구회는 지난 2001년 배 관련 기술·정보 교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내사랑우리배동호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됐다.

2015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자는 의미에서 우리한국배연구회로 개칭했으며 누리집, SNS를 통해 기상기후를 비롯한 재배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배기술, 국내 육성 품종 보급 및 정착에 힘써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 공로를 인정받아 권 회장은 지난 해 연말 제9회 한광호 농업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배 품종 육성과 정착과 지역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인재육성기금을 기탁해주신 권 회장께 감사드립니다”며 “보편적 교육 복지 확산과 인재 육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